



## 과일·야채 多量 섭취, 癌豫防에 효과 커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대부분의 암은 예방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어 홍미를 끌고 있다. 세계 17개국 1백15군데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야채나 과일의 섭취량이 적은 그룹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 비해 2배나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발표는 최근 東京에서 개최된 「비타민 국제학술강연회」에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암예방·관리부문의 글라디스·브로크박사가 보고한 것으로 食物이나 영양분과 건강의 관계는 식사형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통 한 나라에서 연령이나 교육, 흡연, 알콜섭취량 등을 수십명에서 수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통계처리를 했다는 것.

전종류의 암조사 등에 야채와 과일 섭취가 많은 사람에게서 암에 걸린 확률이 적다는 것은 1백15개 시험중에서 93건이었다는 것. 대상자를 1일 섭취량에 따라 많다, 보통, 적다의 3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섭취량이 적은 그룹에서는 암발생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식도·구강·후두암에 있어서는 21시험 중에 20건,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에 있어서는 27시험중 26건에서

야채 등의 예방효과를 보였다는 것. 또, 섭취한 食物 중에 비타민C의 양을 계산하여 비타민C의 섭취가 폐, 췌장, 식도암 등을 예방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45건의 시험중 33건에서 야채의 효과와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 야채에는 식물섬유나 다른 비타민도 많아 발암예방에 비타민C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미 1989년에 미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는 하루에 5가지 종류 이상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美國대학생, 5백명중 1명 HIV에 感染

美國 大學生의 경우 5백명 중 1명 정도가 AIDS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이들이 性的 관습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감염자는 급속히 늘어날 것 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CDC(美질병관리센타)가 미국의 대학생들의 HIV감염률을 조사하기 위해 美대학건강협회(ACHA) R.P. Keeling 박사의 도움을 얻어 모두 19개 大學의 1만6천8백63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들 중 30명이 HIV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CDC는 현재의 숫자도 큰 의미를 갖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성매개 질환에서도 그려했듯이 이 질병도 급속히 확산될 것이란 점이라며, 이번의 조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대학 19개 중 10개 대학에서는 감염자가 전혀 없었으며, 24세 이상인 학생들의 감염률이 그보다 어린 학생들보다 7배나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腺腫過形成, 肝癌으로 轉移 가능성 높아

良性으로 알려진 腺腫過形成(adenomatous hyperplasia : AH)은 肝細胞癌(HCC)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기능이 허용하는 만큼 절제되어야 하며, 절제할 수 없다면 그밖의 여러 수단으로 이러한 인식하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日本国립암센터 外科의 Tadatoshi Takayama박사 등 10명이 AH가 HCC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간질환에 관련된 17명의 환자에게서 추출한 20개의 AH小結節생검을 1년에서 5년

에 걸쳐 추적, 검사하여 그 결과를 Lancet誌 최근호에 발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 AH의 악성변형에 대한 진단기준은 상대적인 소결절量의 倍加와, HCC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영상특성의 변화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 여러 臟器를 同時に 移植시도

췌장이나 십이지장암이 肝臟에 전이되어 치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환자에 대해 상복부장기 전체를 腦死者的의 장기와 바꾸는 이식술이 미국에서 고안되어 임상에 응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방법은 장기이식에 대한 공헌이 큰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스타클박사팀이 연구한 것으로, 암이 전이된 간장, 췌장, 비장, 십이지장을 떼어내고 뇌사자로부터 摘出한 장기를 같은 장소에 이식한다는 것. 이를 장기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식한다고 하여 cluster수술법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임상응용은 약 2년전부터 스타클박사팀에 의해 시작되어 작년에 발표된 10가지 症例의 결과를 수술실패로 인한 1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암의 재발도 없어 매우 유망한 이식법임이 증명된 것으로 알려졌다.